윤달과 생전예수재 공덕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올해는 7월에 윤달이 든다. 윤달은 음력에서 실제 계절 변화와 달력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 추가되는 달이다. 옛 풍속에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다고 하여 '공달(空月)'이라 불렀으며 민간에서는 '썩은 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으로 그때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무슨 일을 해도 손을 타거나 부정을 타지 않는 달로 여겨 평상시 신의 노여움이 두려워 행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윤달에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사나 혼례, 수의(壽衣) 짓기, 조상의 묘 이장하기 등의 풍속이 윤달에 하면 탈이 없다는 민간 신앙이 있다.

불교에도 전국 사찰에서는 윤달에 '생전예수재'라는 공덕 닦는 의례를 봉행한다. 생전예수재는 사후에 후손이나 타자가 망자를 위해 올리는 사십구재를, 생전에 '나의 사후 칠칠재'를 스스로 닦는 의례이다. 사후의 칠칠재가 특정 망자를 위해서 행해지듯이 생전예수재도 특정한 재자를 위해 행해지는 의례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홀로 행하는 생전예수재가 많은 이들의 동참 아래 봉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이 같은 신행 양상이 등장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간혹 생전예수재를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생

윤7월 '생전예수재' 봉행 잇달아
스스로 먼저 공덕 닦은 의미
예수재 동참해 작은 공덕 쌓길

전예수재를 하면서 '전생의 빚을 갚는다, 명부전을 만든다'라고 하니 중세 서양의 면죄부 장사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심이다. 면죄부와 같다고 보는 것은 그 상징성과 신행의 의미를 바로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

생전예수재에는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고 하는 의식과 사상이 있다. 그런데 그 빚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경전 몇 권과 명부전 몇 관이라고 한다. 경전은 〈금강경〉, 〈수생경(壽生經)〉 등인데 이 경전은 수명의 늘어남을 바라는 마음에서 염송한다. 빚은 종이로 돈을 만들어 그것을 명부전으로 환전한다고 하는 독특한 종교적 의례 행위로 행해지는데, 명부의 빚을 갚는 의례행위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금강경〉 염송과 저승 빚 갚는다는 의례로 종이돈 만들고 저승 돈으로 환전하는 의례 행위로 구현된다. 이것은 경전을 염송하여 깨달음을 얻고 빚는 갚는다는 형식으로 재물을 보시하여 공덕을 짓게 하는 방편의 의례이다.

생전예수재나 사후칠칠재 모두 저승의 세계인 명부 십대왕의 심판을 받는 형식이다. 그런데 명부 십대왕은 명계 시방의 왕이라는 의미로, 중생들이 십악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상징화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생전예수재는 선한 업을 행해서 공덕을 쌓고 경전을 염송하여 깨침을 얻도록 하고자 시설됐다. 특정인이 홀로 봉행하던 생전예수재를 공달인 윤달에 대중이 함께 십선업으로 공덕을 닦아 소원을 이루도록 하게 하는 저변에는 한국불교도가 빚어낸 생활의 지혜가 터하고 있다.

더위 속에서 윤달의 생전예수재에 참여해 작은 공덕이라도 짓는 것은 어떨까.

관용의 정치가 필요하다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계엄의 파고를 넘어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한 달이 지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합은 '관용'이라는 가치의 기반에서 출발한다. 관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는 길이다. 근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관용의 덕목은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17세기 서구에서 종교 분쟁의 폐해로 인해 정치적 안정이 붕괴되고 증오와 폭력이 난무했을 때 당시의 많은 사상가가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미국 헌법 등에서 관용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볼테르(Voltaire)는 "나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죽을 때까지 변호할 것"이라고 말한다.

관용에 대해 가장 치열한 지지의 웅변을 한 사상가는 존 슈튜어드 밀(J.S. Meal)이다. 그는 유명한 〈자유론〉에서 관용은 사회의 지적인 진보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며, 개인의 도덕적 정신적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관용은 자비 윤리의 틀에서 보면 설명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덕목이다. 자비는 '포괄성'이 매우 높은 가치이다. 붓다의 정치관은 관용을 바탕으로 한다. 강대국인 마가다국의 왕이 약소국인

사회통합 강조한 이재명 정부
관용, 민주주의 생명선과 같아
통합 위한 불자들 책무 상기를

밧지국을 침략하는 것을 저지하는 내용인 〈유행경〉의 '칠불쇠법'을 보면 바로 관용의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관용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관용이 부도덕하고 건전하지 못한 행위와 신념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응집력과 개인적 미덕을 파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비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다. 자비는 희생의 윤리에 불과하며 부정의의 만연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달라이라마는 저서 〈종교를 넘어〉에서 자비는 결코 잘못된 행동이나 부당함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통해 더 큰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자비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분법과 구분심은 인간의 뇌를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는 감역력이 높다. 더구나 권력이라는 먹잇감을 두고 쟁투하는 정치의 마당에서 관용의 정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큰 지혜와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있어야 한다.

관용은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 바위이다. 시지프가 바위를 포기할 때 시지프는 죽는다. 관용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관용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죽는다. 실패하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관용의 정치이다.

민주주의 핵심은 'by the people'에 있다. 정치의 판가름 판에서 춤을 추는 광대가 되지 말고 관용의 정치 문화를 만들고, 이를 정치의 마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격랑의 파고 속에 난파당할 위험도 커질 것이다. 통합은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 함께 걷는 길이다. 어느 때보다 관용의 정치 문화를 구현하는 지혜와 방편이 절실하다. 국민 통합을 위한 불교도의 책무가 빙벽처럼 앞에 있다.

社 說

'문명화' 논리로 세계유산 등재 가능할까

최근 8개 지방자치단체가 근대 기독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해당 유산이 특정 종교의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유네스코가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화의 논리에는 근대화와 계몽의 서사가 반복된다. 이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이 앞세운 '문명화(mission civilisatrice)' 담론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문명화'라는 명목으로 불교·유교·무속 등 기존 전통신앙에 대한 폄하와 배제가 이뤄진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광복 직후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했던 기독교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기독교 편향 정책의 영향이다. 정책·제도적 배경과 이해 없이 근현대화의 주요 동력으로 기독교 전래를 꼽는 것은 '근대화=기독교'라는 단선적 역사관을 고착시킬 우려가 크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세운 병원, 학교 등이 공공적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가치'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단지 '역사적 건축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춘 유산에 부여되는 지위다. 철 지난 '문명화' 논리로, 과연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지 묻고 싶다.

진관사 태극기 국보 승격을 기대한다

2009년 서울 진관사 칠성각 불단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와 관련 유물은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과 진관사의 항일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항일의 뜻을 담아 일장기 위에 태극을 새긴 제작 방식, 실제 독립운동 현장에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 독립신문 류 등의 귀중한 자료를 감싸고 있었던 점, 사찰 불단 깊숙이 숨겨져 있다 100여 년 만에 발견된 과정 등은 '진관사 태극기'가 우리의 극적인 역사를 품은 상징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진관사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이고,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의 거점지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는 역사성이 인정돼 2010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이러한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학술적·정신적 가치를 올바르게 새기고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국보 승격과 '태극기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교계와 학계에서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6월 29일 진관사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는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정신을 기리고 불교계 독립운동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국보 승격과 전문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책무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7월 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7월 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7월 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